

세상을 정복하는 제자의 모델 여덟 번째 여호수아의 세상 정복이다. 여호수아가 누구인가?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,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, 그 속에서 기생 라합 같은 제자를 찾아내고, 후대를 위해 그 모든 과정을 남겨놓은 사람이다(여호수아서). 한마디로 교회 살리고, 현장을 살리고, 후대를 살린 것이다.

1.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,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.
  - 1)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교회, 현장, 후대를 살릴 영적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.
 

이 축복이 창1:27의 첫 언약이다. 구약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이고(신33:29),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 시절에 다시 확인시켜준 언약이다(사55:3-5) 중직자 훈련을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.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다. 세상에서도 중요하게 쓰임 받으라는 것이다.
  - 2)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된 가나안 정복은 우리에게는 현장 정복이다.
 

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와 대적을 만난다. 거기서 영적 승리를 누리라는 것이다(엡6:12).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. 수많은 장애와 대적과 싸워야만 했다. 하나님이 역사하니 요단강도 갈라지고, 여리고성도 무너졌다. 아이성 싸움에서는 잠시 패전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승리했다. 마지막 전쟁이 전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이때 그 유명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.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맑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,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들이 벌어졌다. 어려운 시간인가?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, 전무후무한 증거를 주실 것을 믿고 가라.
  - 3)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찾아낸 기생 라합은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.
 

여호수아를 찾아와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.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.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, 그들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다. 237 선교는 한 나라의 국가 미래도 바꾼다(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)
  
2. 이렇게 여호수아가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셨는가?
 

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세가지로 주목하면서 중요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.

  - 1) 여호수아가 한 시대의 영적 리더로 쓰임 받도록 훈련시키고 배경이 되어준 분들이 있었다.
 

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을 “여호와와 중 모세의 수종자였고, 눈의 아들이라”고 소개를 했다.
  - ① 모세는 여호수아의 청년 시절에 그를 발탁하여 훈련시키고, 직접 안수했던 사람이다(신33:9).
 

내 옆에 나를 훈련시켜 주고, 나를 축복해주고, 나를 세워 준 영적 지도자를 생각하며 감사한 것이다(왕하2:12). “수종자”, 또는 “시종”이라는 말은 옆에서 늘 함께 움직이며 심부름한 자라는 뜻이다. 그것이 기회였다. 이 역할을 잘 설명해준 한 구절이 있다.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갈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(출33:10-11). 혼자 남아 기도도 하고, 뒷정리를 한 것이다. 여기서 영성이 자란 것이다
  - ②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.
 

기본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다.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잘 해주었는지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다. 물론 내용이 중요하다. 그러나 내 부모로 계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순종하고, 감사하고, 섬길 수 있어야 한다.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것이다(출20:12, 엡6:1-3). “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”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간의 기본이고,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(막7:11)
  - 2) 여호수아를 도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강력하면서 숨어서 도운 동역자 갈렙과의 만남이 있다.
    - ① 모세 시대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만난 사람이다.
 

모두가 불신앙할 때 옷을 찢고 담대히 믿음을 외친 친구이다. 세가지가 통한 친구이다(민14:6-8). 하나님 계획을 나눌 수 있었고,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통했고, 미래를 놓고 도전한 사람들이다. “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,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”고 외친 것이다.
    - ② 친구가 지도자가 되면서 은퇴를 했지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여호수아를 도운 사람이 갈렙이다(수14:6-15)
 

평생에 이런 동역자 한 사람만 내 인생의 팀이 되어도 인생이 달라지고, 역사를 바꾼다.
  
- 3) 리더가 되어 가는 길에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다.
  - (1) 모세를 통해 정말 중요하게 전달 받는 것이 무엇이였는가? 언약이다(3-6절)
 

그 조상들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. “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” “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게 주었다”. 가나안 언약이다. 그리스도 언약이고, 그 안에서 누릴 승리의 언약이다. “이 광야와 유브라데강부터 대해에 이르기까지 너희 영토가 된다”, 정복의 언약이고,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다. “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.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”, 방법의 언약이다.
  - (2) 여호수아가 평생 이 언약이 각인, 뿌리, 체질 되게 해서 내 것(나의 언약, 나의 복음)이 되게 만든 것이다.
 

이때부터 나를 보고, 문제를 보고, 사람보는 눈이 달라진다. 여기서 평생 지속해야 할 3오늘이 나온다.
  - ① “강하고 담대하라”고 세 번 반복했다(6-9절). 어디서 그것이 나오겠는가? 기도의 비밀이다(오늘의 기도).
 

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(수3:1), 여리고를 치기 전 새벽에 일어났다(수6:12)고 했다(기도로 시작한 하루) 매일 여리고를 입을 다물고 돌았다. 말보다 기도를 앞세웠고,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다.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(수10:12)
  - ② “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행동할 것이라”고 했다(7-8절).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(오늘의 말씀).
 

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, 길을 찾고, 중요한 일을 하거나 위기 때에 말씀을 앞세웠다(언약계). “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”고 했다(7절). 내 자신의 말,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.
  - ③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. 이것이 전도와 제자 사역이다(오늘의 전도)
 

사람을 함부로, 쉽게 판단하지 말고,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, 전도 계획해보라. 내 힘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바꿀 수 없다. 그들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보라.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,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쓰기를 원하시는 미션을 나누라. 제자로 설 것이다.

**결론**-여호수아처럼 영적 지도자, 부모, 동역자와 만남의 의미를 다시 붙잡으라. 3오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삶을 만들어보라. 우리 각자 때문에 교회가 살고, 현장에 증거가 계속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.